

2016. 3. 30(수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16년 3월 30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복지본부 자활지원과

자활지원과장	김종석	2133-7480
--------	-----	-----------

자활정책팀장	배기선	2133-7482
--------	-----	-----------
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 수 : 4매

담당자	나종택	2133-7483
-----	-----	-----------

서울시, 노숙인이 노숙인을 살리는 응급처치 교육 확대

- 지난해 10회 시범운영했던 노숙인 응급처치교육을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
- 노숙인 실정에 맞는 다양한 인문학강좌 등 문화 프로그램 확대
- 2016년 총 43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으로 노숙인 사회적 인식개선 앞장

지난 3월 16일(수) 노숙인 이○○(48세, 남)씨는 같이 식사를 하던 노숙인 김○○(58세, 남)씨가 쓰러지자 지난해 따스한채움터에서 공공일자리에 참여했을 당시 배웠던 응급처치 방법이 떠올랐다.

이 씨는 즉시 응급처치를 시행하여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가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왔다. 이 씨는 “응급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보아 왔지만 배우기 전까지는 119가 올 때까지 속수무책이었다.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후 인명을 살릴 수 있는 재능을 갖게 된 것 같아 뿌듯하다”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.

- 서울시는 거리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의 인명을 살리기 위해 지난해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을 10회 운영하여 115명의 노숙인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매주 정기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.
- 특히, 시는 무료 급식소인 따스한 채움터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응급처치 교육을 모든 노숙인 시설에 직접 찾아가 총 8,064명(노숙인 등 7,509명, 시설종사자 455명)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.
- 교육내용은 ▲응급처치(목적, 필요성, 행동요령) ▲심폐소생술, 자동제세동기(AED) ▲상처, 드레싱, 붕대 ▲골절 및 중독 등으로 구성되어 기독교대한감리회와 함께 한다.
- 서울시는 응급처치 교육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거리 및 시설 노숙인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한 조치로 인명을 보호하고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- 한편, 시는 응급처치 프로그램 이외에도 노숙인 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43개를 마련하여 노숙인의 자활 및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앞장선다.
 - 2015년에 실시한 4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, 그 중 효과가 있었던 자활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43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.

- 작년 프로그램 운영결과 문화 관련 인문학강좌 등 21개, 건강관련 응급처치 등 10개, 일자리관련 양초 공동작업장 운영 등 10개를 운영하여, 총 8,000여명(중복참여포함)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더불어 2006년부터 시작되어 철학, 문학, 글쓰기, 예술사, 한국사 등의 수업과 다양한 문화체험, 현장학습 등을 병행하여 노숙인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인문학 과정은 올해 4월 5일 본격적으로 운영된다.
 - 2015년에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지원 및 재능기부로 운영되었으며, 1,165명이 참석하였고, 문학, 역사, 글쓰기 등 6개 과목, 120회 진행된 바 있으며 올해에도 6개과목, 160회로 진행될 예정이다.
- 서울시는 서울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며 결핵으로 치료를 받던 정○○씨(11기 62세, 남)의 경우 인문학 교육과정에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현재 취업에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. 문○○(11기 60세, 남)씨 역시 알코올중독으로 거리노숙 중이었으나,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존감을 회복하고 단주노력을 하게 되었으며,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.
-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“자활프로그램이 효과가 큰만큼 노숙인 분들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취향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.” 며 “프로그램을 통해 자존감이 향상되고, 자립할 수 있도록 시민의 따스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”고 말했다.

붙임 1 : 참고사진

《참고사진》

- 응급처치 교육 : 인공호흡 교육 중 (따스한 채움터)



- 인문학교육 : 글쓰기 수업 (다시서기 센터)

